

## 싱글여성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경험 분석 - 인구교육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

왕석순\* · 전주람\*\* · 류경희\*\*\*<sup>1)</sup>

전주대학교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 창원대학교 교수\*\*\*

---

## Thematic Analysis of Original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 for Single Women - Implications for Population Education -

Wang Seok Soon\* · Jun Joo Ram\*\* · Ryu Kyung Hee\*\*\*<sup>1)</sup>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Dept. of School of General Education, University of Seoul\*\**

*Dept. of Family Welfare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of original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in single women.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arranged with 18 single women who met the criteria for the present research purpose. We considered only those responses of the interviewe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ir experiences of original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whe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three steps by methods of thematic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s of original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in single women could be grouped into six main clusters of themes which may be labeled as (1) themes centered on 'Family attachment', (2) themes centered on 'Special People' and (3) themes centered on 'Estrange relative relationship', (4) themes centered on 'Small social life', (5) themes centered on 'Absence of a social relationshipship', (6) themes centered on 'Drive for freedom'. Among the first category of themes of 'Family attachment', we have found three sub-themes such as 'Adult Baby under parents' care', 'Confirm of single life', 'Intricate family relations'. As for the second category of themes 'Special People', three sub-themes have been found including 'I Only Love Mom', 'Sister friend', 'My lovely nephew or niece'. And for the third category of only one theme 'Estranged relative relationship'. And for the fourth category of themes 'Small social life', there were found four sub-themes which include 'Relationship at work', 'Chat with friends', 'Keep

---

1) 교신저자: Ryu Kyung Hee, 20 Changwondaehak-ro, Changwon-Si Gyeongnam 641-773, Republic of Korea  
Tel: 055-213-3542, Fax: 055-213-3549, E-mail: ryukh@changwon.ac.kr

oneself aloof from the opposite sex', 'Singles gather together'. And for the fifth category of themes 'Absence of a social relationshipship', there were found three sub-themes which include 'Alone than meeting', 'Lazism', 'Tight daily lives'. And for the final category of themes 'Drive for freedom', there were found two sub-themes which include 'Caution for attachment', 'Caution for entanglement'. In all, there are sixteen sub-themes to consider.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presented some conclusions on the experiences of original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in single women. We also presented som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on population education and future research.

**Key words:** 싱글여성(Single Women), 원가족 관계(Original Family Relationship),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 인구교육(Population Education)

## I. 서론

통계청의 '201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30만2,828 건)는 2003년(30만2,503 건) 이후 가장 적었다. 특히 인구 대비 결혼 비율을 보여주는 조(粗)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5.9건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결혼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전년보다도 0.2세 상승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1.7세, 2.2세 늘어난 수치다(Hankookilbo, 2016). 여기서 여성의 초혼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통계는 결혼 적령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더불어 결혼을 꼭 해도 되지 않는다는 태도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4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6.8%로 해당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밑돌았으며, 남성(61.5%)보다 여성(52.3%)이 결혼의 필요성을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Moneytoday, 2016).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가족 변화에 따른 결혼, 출산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30년 전에 비해 약 8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20년 뒤엔 전체 가구 3개 중 1개는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Dongailbo, 2016).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 혼인인구의 감소, 결혼에 대한 태

도 변화 등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선택에 방점을 두고서 다양한 삶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초점이 옮겨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Sung, 2014a). 즉 결혼하지 않은 싱글의 삶이 다양한 생활양식 중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결혼과 가족보다는 개인의 욕구나 개성을 우선시하는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등 다섯 가지를 포기한 이른바 '오포세대'의 한숨이 깊어지면서 비혼 선언 등 새로운 '비혼 풍속'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친구들에게 결혼하지 않을 것 같으니,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축의금 명목으로 걷어서 내게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결혼은 하지 않지만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서 싱글 웨딩이 번지고 있다. 싱글웨딩은 메이크업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뒤 말 그대로 혼자(싱글) 사진을 찍어 남기는 것이다(Segyeilbo, 2016). 이러한 새로운 풍속까지 생겨나고 있으니 싱글의 세대가 확대되는 것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싱글은 예전처럼 결혼 전의 단계인 미혼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즐기는 독신이라는 점에서 기존 세대와 대비된다. 싱글은 결혼이라는 틀에 자기를 맞추기보다 자유와 이상과 일을 더 중요시하고 당당하게 살려는 욕구가 강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신주의자와 같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결혼을 필수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Jeong, 2009).

이러한 경향으로 2000년대가 되면서 싱글 여성을 새로운 가족형태의 등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으며,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저출산 담론과 맞물려 싱글 여성을 저출산의 원인이자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개인으로 바라보

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Sung, 2014b). 실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2015년 합계 출산율은 1.24로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05년 1.0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후 약간의 반등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KukminIlbo, 2016).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주 원인을 비혼인구의 확대, 남성보다는 출산을 담보할 수 있는 싱글여성의 인구 증가로 해석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싱글들의 삶, 특히 싱글여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책임을 오로지 싱글들, 그중에서도 싱글여성들로 귀인시켜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을 빗겨가는 분석이다. 오히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건강한 사랑과 결혼관, 가족공동체의 핵심적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지지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결혼관 및 친가족적인 가치관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는 인구교육을 통해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해 내려는 대처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같은 대처방안의 하나로 싱글여성들의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2016-2020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기존에 보육환경 개선으로 집중되었던 저출산 대책을 결혼 장려 정책으로 변환하였다. 이같은 결혼 장려 정책을 위한 우선 과제는 싱글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 특히 출산을 담보할 수 있는 싱글여성들의 실제적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이해를 토대로 싱글과 대비되는 긍정적인 결혼 및 친가족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인구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다(Wang et al., 2015b).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향상시키는 인구교육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싱글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Wang et al., 2015a)와 싱글여성의 일상생활(의식주, 소비 및 여가생활)의 의미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Wang et al., 2015b)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싱글생활이 가진 장점을 기혼자들의 결혼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결혼생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인구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결혼생활은 결혼의 여러 가지 장

점을 가지면서 싱글생활의 장점도 흡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인구교육의 교육내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싱글생활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상 및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이 긍정적인 결혼 및 친가족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구교육의 콘텐츠로 새로이 구성되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는 싱글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Wang et al., 2015b)이나 비혼을 선택한 이유(Wang et al., 2015a)에 대하여 분석하였을 뿐, 이들이 비혼을 선택하였거나 비혼으로 남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되는, 싱글의 원가족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경험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교제하려는 욕구를 소속의 요구라고 할 때, 이 특성은 개인에 따라 많을 수도 있으며 적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욕구가 적은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Lee & Park, 2011). 따라서 소속의 욕구로 표현되는 싱글여성들의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내어, 이를 인구교육의 시사점으로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실제 최근 혼자인 게 낫설지 않은 사회 분위기가 증가하면서,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이 유행하고, 컬러링북 색칠, 블록 조립 같은 혼자만의 취미가 인기다. 또한 그런 일상을 숨김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공유하면서 싱글들은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JoongAng Ilbo, 2016)고 분석되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싱글들의 삶을 비교한 Kim(2013)의 연구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의 싱글들 중 ‘나는 나의 친구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내가 속해있는 조직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나의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항목에 대하여 한국의 싱글들은 세 나라 중 가장 높게 나타나서, 삶의 질에 관한 인간관계 만족도가 한국의 싱글들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우울감을 느낀다’, ‘나는 쉽게 좌절감을 느낀다’, ‘나는 불안감을 느낀다’의 항목 역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싱글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설 검증 방식의 양적 연구는 연구 모형 자체가 통계분석과 일반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지만,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깊이 있는 개인의 경험을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 관계의 어느 부분에서는 만족하면서도 고립과

우울을 깊이 느낀다면, 싱글들의 인간관계에서의 깊음 내면의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싱글 여성의 인간관계, 즉 원가족을 포함한 그 밖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경험을, 개인 내면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싱글들이 가지는 인간 관계의 다양한 경험들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싱글들, 특히 싱글여성이 가지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관계의 특성을 분류하여, 생애설계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사회적 용어는 싱글 외에도 독신, 미혼, 비혼 등으로 다양하나, 최근에는 ‘싱글’이라는 용어를 독신, 미혼, 비혼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싱글이란 이혼, 사별, 별거 등을 포함하여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Schwartz & Scott, 2006; Kim, 2013 cite)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독신, 비혼, 미혼이라는 용어보다는 거부감 없이 많이 지칭되고 있는 ‘싱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직 20대 여성은 결혼을 유보한 계층으로 30대나 40대 여성과는 다른 연령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50대와 60대 여성 인구의 경우에는 발달 주기 상 성인기가 아닌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싱글여성을 30대와 40대의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싱글 여성이라 함은 부모님과 생활상 주거 독립을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30~40대 미혼 여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싱글 여성들의 원가족 경험은 원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 관계에서의 경험을 말한다. 사회적 관계 경험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성 및 동성 친구 관계에서의 경험 등으로 살펴볼 수 있기에 이들 관계 경험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각각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미혼, 비혼, 독신, 싱글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 1. 싱글 여성의 원가족 관계 경험

원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경험은 일생동안 개인의 여러 발달 영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Ha, 2008). 우리나라의 가족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1차 친족인 원가족과의 관계를 원가족 이외의 다른 친족인 2차 친족과의 관계와 구분하려 하며, 성장 후 분가하여도 원가족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Kim, 2002). 이것은 비혼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원가족은 비혼 삶을 유지해 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Allen, 1989), 딸, 형제, 고모/이모와 같은 가족 내 역할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된다(Pubinstein, Alexander, Goodman, & Luborsky, 1991).

Sung(2014a)의 연구에서는 비혼들은 가족을 혈연으로 맺어진 운명공동체로 보았기 때문에 가족의 중심부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삶보다 비교적 자유롭다고 인식되는 비혼자의 삶임에도 가장 소중한 관계는 ‘가족’이라고 하였으며, 가족은 ‘벽이 없는 관계’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도 없으며,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후 기존 형제자매들이 본인을 어머니의 보호자로 인식하는 상황이 조금은 부담된다고 하였거나, 어머니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혼자들은 부모와 동거하거나 그렇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에도 원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독신여성들은 부모와는 친교적 행동을 경제적도움 행동보다 더 많이 하였고, 형제자매와는 친교적 행동보다 경제적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높은 학력수준과 전문 관리직의 직업을 가진 독신자녀에게 부모가 결혼하라는 압력을 적게 행사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 부모와 친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형제와의 친족행동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은 독신과 결혼 압력을 적게 행사하는 형제 사이에 친족행동을 많이 하고, 자매와의 친족행동은 40대 후반의 고소득 독신이 결혼 압력을 적게 받고 부양책임감을 더 느끼는 경우에 자매와 친족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2).

또한 미혼 여성들은 부모와 형제자매의 생식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식으로 광범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원으로 인식하고 있다(Sung, 2014a). 이런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책임감 때문에 결혼의 기회를 포기하거나(O'Brien, 1991) 원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비공식적인 역할 때문에 미혼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비혼이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의 양식으로 인해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나, 조카를 돌보는 일에 거의 전적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혼 여성도 있었다(Sung, 2014a). 그 외 연구에서도 미혼 여성들은 결혼한 형제들보다 나이든 부모나 형제들을 더 많이 돌보고 있었으며, 조카들에게 준부모의 역할을 하는 등 더 긴밀한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Ward, 1979). 가족 안에서 동생들이나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이러한 경험이 결혼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미혼으로 남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으며(Spreitzer & Riley, 1974), 이러한 관계에서 불행한 원가족의 성장배경이 결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비혼에 대한 가족의 반응에 분노가 치솟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Kang, 2015).

한편, 기혼자와 미혼자를 비교하는 연구(N. Sarkisian & N. Gerstel, 2008; Sung, 2014a cite)를 보면, 기혼 자녀의 경우 자신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미혼 자녀나 이혼 자녀가 기혼 자녀보다 세대 간 유대가 더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와 동거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비율은 기혼 자녀보다 미혼 자녀나 이혼 자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부모와 정서적, 경제적, 실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수준도 기혼 자녀에 비해 독신 자녀나 이혼 자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의 교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며, 자신의 일이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자로 획일화할 수 없다고(Kim, 2007) 보여진다.

## 2. 싱글 여성의 사회적 관계 경험

사회적 관계 경험은 이성 및 동성 친구 관계, 직장에서의 인

간관계 경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혼 여성들의 경우 힘들고 외로울 때, 자신들의 부모(18.3%)와 형제자매(12.9%)보다는 사랑하는 사람(37.6%), 친구(28.8%)들과 함께 한다는 응답이 66%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독신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 부모나 형제자매보다 오히려 마음을 공유하는 또래의 친구나 애인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외롭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경우, 배우자로부터의 위로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족 외적 자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Kim et al., 2010). 그래서 적어도 친한 친구의 존재는 건강한 미혼생활에 있어 중요한 지지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미혼 여성들은 혈연가족중심사회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결혼한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쁘고, 형제간의 소속감은 한계가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정서적으로 서로 힘이 되어줄 집단이 없음을 보게 되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었다. 실제 Kim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미혼여성들은 기혼자들에 비해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 가운데 미혼자가 많았다. 이에 비해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미혼자 친구는 '한명도 없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결혼과 더불어 생활세계의 변화를 남성보다 크게 경험하게 되면서 기혼여성들은 통상 미혼여성들과의 공감대가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결혼한 여성들은 미혼의 친구보다는 기혼 여성과의 교제에 집중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질적인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유대를 공유하고 있는 여성들일수록 결혼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덜 느끼게 되어 결혼이 늦어진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미혼 여성들은 자신들이 20대에는 잘 느끼지 못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결혼함으로써 소원해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만나기도 힘들어지게 되면서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친구들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Shim, 2003). 어쨌든 많은 미혼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미혼 여성들 간의 연결망의 필요성을 느낀다. 미혼 여성들은 가족과 같은 집단을 대신할 수 있는 여성들 간의 우정과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him, 2003). 주위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관계가 부부중심으로 재편성되기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되기 쉽고,

이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압력에 도전하고 자신의 삶과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모임을 원하고 있다(Shim, 2003).

한편, 이성친구 관계에서는 미혼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이성교제 희망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35세를 넘어서면서 결혼 의향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과 유사하다(Cho, 2014). 이성 관계에서 싱글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며, 남자가 여자를 가볍게 여길 때 남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으며 건강한 남자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Kang, 2015). 이성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남자와의 만남에 따른 상처로 배우자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었고, 심정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불편해하고 있었다(Kang, 2015). 반면, Chang(2002)의 연구에서는 30-40대 독신들은 혼자 지내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성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고, 이러한 바람은 40대 보다 30대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경험을 살펴보면, 직장이나 일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으며, 업무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독신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뿐 아니라, 외로울 때 대화상대를 찾는 것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체념하게 되면서 독신자 스스로 주변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특히 미혼자들은 명절이나 가족행사가 있는 시기에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피하게 된다. 가족 모임에서 늘 화제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Park & Kim, 2002). 또한 만나는 친구들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공통된 대화 화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게 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다(Park & Kim, 2002).

그러나 비혼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 준비와 대처를 할 뿐 아니라, 자신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들 간의 교류를 위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이야기할 만한 사고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비혼 여성들의 모

임을 원하고 있다(Shim, 2003).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면서 점차로 비혼 여성들도 자신들의 공감대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나누기 위한 모임들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하는 회원들 중 싱글 여성을 위해 1999년에 시작된 “싱글여성모임”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모임은 각자 삶의 터전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구조 및 냉소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싱글이라는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모임을 구성한 것이다(Single Women Meeting, 2000: Shim, 2003 cite).

종합해보면, 싱글 여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 등(Sung, 2014b),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경험 또는 스스로 자처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나름대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만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망 형성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싱글여성 연구자의 주변에서 본 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선정하는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의 특성상 자기 개방을 할 의사가 없거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제공자 선정에서 정보제공자의 자발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했다. 정보제공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면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골고루 표집하였으며, 또 한 지역에 치우쳐서 정보제공자를 구하기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즉 내용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싱글여성의 원가족 및 사회적 관계 분석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정보제공자를 선정하여 면접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고, 한 참여자의 말을 다른 참여자의 말과 비교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타당도를 위한 초석이 된다(Lee, 2002). 정보제공자인 싱글 여성은 현재 30대와 40대이며, 결혼의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면서, 서울·경기 및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싱글여성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참조).

심층면접은 미리 준비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갖고 약 한 달간

실시하였다. 면접 가이드라인은 특정 주제의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심화 질문을 던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자의 면접 태도, 질문내용, 질문 방식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연구자 간에 사전에 논의를 하였고, 가상 면접을 서로에게 해 본 다음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3권역별로 심층면접에 들어갔다. 심층면접의 장소와 시간은 대부분 대상자가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곳과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 심층면접 시간은 한 사례 당 2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양해를 구해 녹음하였으며, 면접 이후 녹취한 자료는 모두 필사본으로 전환하였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 Women

(N=18)

No.	Name	Age	Final Education	Occupation	Working Experience (year)	Monthly Income (One million won)	Residence
1	An Hyeo na	40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Middle school teacher	18	350	Gyeongsang
2	Bae Ha na	44	doctorate	Professor	9	350	Gyeongsang
3	Back Seol hui	42	doctorate	Professor	12	350	Seoul, Gyeonggi
4	Choi Ji eun	38	university graduate	Sales and service	17	180	Seoul, Gyeonggi
5	Choi Yun jeong	40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Nurseries director, Institute director	20	500	Gyeongsang
6	Han Hye jin	41	doctorate	Psychological counseling	13	200~250	Seoul, Gyeonggi
7	Kang Mi yeon	35	high graduation.	Esthetician	13	130	Jeonlla
8	Kim Min hyeon	32	university graduate	Home tutoring	7	120	Jeonlla
9	Kim Sang mi	38	master's degree	institute director	10	200	Seoul, Gyeonggi
10	Kim Seung hui	38	university graduate	Social worker	16	150	Gyeongsang
11	Ko Gyeong hui	38	doctorate	Professor	11	500	Jeonlla
12	Lee Hui yeon	37	course completion for doctoral program	Acupuncturist	10	450~500	Seoul, Gyeonggi
13	Lee Son gi	36	doctorate	Lecturer(Uni.)	8	200	Jeonlla
14	Lee soo jung	42	course completion for doctoral program	Lecturer (Uni.)	4	200	Seoul, Gyeonggi
15	Lee Yeon hui	41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Counselors	7	100	Gyeongsang
16	Lee Yu rim	36	university graduate	English Institute Director	3	600~700	Jeonlla
17	Nam Jin suk	39	university graduate	Academy Instructors, Interior	16	180	Jeonlla
18	Park Ji yun	33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Part-time work	5~6	90	Gyeongsang

\* 위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 하였음.

2. 자료분석 방법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분석 방법으로 주제별 분석법 (thematic analysis),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 질문분석법 (question analysis) 등이 있는데(Yang, 2000),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의 과정은 크게 3단계, 즉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Chang, 2000). 이 과정을 따라 본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를 위해 정보제공자들의 면접 내용을 녹음한 것을 한글 문서작업을 통하여 자료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접 내용을 여러 차례 검토한 후 자료를 부호화하였다. 즉, 싱글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핵심

언어로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하여 나타난 공통된 답변이나 유사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부호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이야기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였고, 같은 항목 내에서도 또 다시 세분화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과 자료의 해체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주제에 대한 최종 목록을 정했고, 주제별로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의 전 과정에서는 공동 연구자간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로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족 애착’, ‘특별한 사람들’, ‘소홀한 친인척 관계’, ‘작은 사회생활’, ‘만남의 상실’,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라는 6개의 대주제와 각 대주제별로 16개의 중주제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Main Contents of Sub-themes

(N=18)

Themes(6)	Sub-themes(16)	Main Contents
가족 애착 (Family attachment)	돌보아지는 성인아기 (Adult Baby under parents' care)	부모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존재임, 나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줌, 옷 선택 등 사소한 결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의식주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됨, 부모님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줌.
	싱글생활에 대한 지지 (Confirm of single life)	결혼에 집착하지 않는 부모, 성화하지 않는 부모, 싱글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 또는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줌. 부모의 위로(남자만나는 것보다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위로해주심), 결혼하기를 원하나 크게 내색하지 않으심, 몇 년 전부터 알아서 하라시며 믿어주시고, 결혼에 대하여 압박하지 않으심.
	끈끈한 가족관계 (Intricate family relations)	부모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일상에서 엄마와 친근하게 자주 연락함, 엄마 아빠랑 있는 것이 편안하고 좋아 외로움 틈이 없음.
특별한 사람들 (Special People)	엄마 사랑 (I Only Love Mom.)	엄마와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함, 엄마는 친구 같은 존재임, 고민이 있을 때 엄마에게 상담을 요청함, 심리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함, 엄마는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나의 짜증이 오히려 엄마에게 활력이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함.
	친구같은 언니 (Sister friend)	자매이지만 제일 친한 친구임, 스트레스를 서로 이야기하며 풀기도 함, 언니도 결혼을 안하여 서로 의지할 수 있음, 둘이 결혼을 안했기에 완전히 외톨이는 아님, 언니와 살다보니 외로움을 못 느낌
	사랑스러운 조카 (My lovely nephew or niece)	조카들이 웃고 뛰어 노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짐, 결혼했다면 조카를 마음껏 볼 수 없었을 것임,
소원한 친인척관계 (Estranged relative relationship)		명절 때 될 수 있으면 안가려고 함, 교류가 어렸을 때부터 적었음, 활발한 왕래가 없음, 큰 행사 때 한번 봄, 친척들에게 별로 관심 없음, 친인척 관계에서 서로 별로 관여하지 않음.
작은 사회생활 (Small social life)	직장에서의 인연 (Relationship at work)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주로 만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장 친함, 일로 만났지만 친해지면 수다를 떠는 관계로 친해짐,
	지인들과의 답소 (Chat with friends)	운동 나갈 때 저녁 약속하여 식사함, 오래된 친구들과 감정을 나눔, 친구들과 영화를 봄, 친구와 전시회를 관람함,



Themes(6)	Sub-themes(16)	Main Contents
작은 사회생활 (Small social life)	이성과 거리두기 (Keep oneself aloof from the opposite sex)	이성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 자체가 불편함, 새롭지 않음, 남자로 보이지 않음, 아내 있는 남자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은 부인에게 실례가 되는 일로 인식함, 배우자면 모를까 이성친구와 교류하는 것은 좋지 못함.
	싱글은 싱글끼리 (Singles gather together)	결혼한 친구들과는 대화 소재가 다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함, 만나는 사람 중 싱글이 많은 것이 특징임.
만남의 상실 (Absence of a social relationshipship)	만남보다 홀로 (Alone than meeting)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함, 혼자 있고 싶을 때 연락 오면 만나지 않음,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 잘 안함, 오히려 사람들과 붙어 있는게 힘들.
	귀차니즘 (Lazism)	사회적 관계의 폭을 넓히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람들과 시간 맞추고 어디 가고 하는 것이 귀찮음, 낯선 사람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음, 맞선도 그 과정 자체가 귀찮아 나가기 싫음.
	빡찬 일상 (Tight daily lives)	사회적 관계를 할 시간이 없음, 영업상 인간간계를 풀어야 하며 사람을 너무 만나 피곤함, 하루가 너무 바쁨, 육체적으로 힘들,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함.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 (Drive for freedom)	애착 주의 (Caution for attachment)	‘조카는 조카일 뿐 애착을 갖지 말자’라고 다짐함, 내가 돌봐줘도 결국 동생네 가족임, 여동생 가족과 친했으나 어느 정도 거리는 두어야 함, 동생네의 가족은 동생의 가족 일뿐임.
	얽힘 주의 (Caution for entanglement)	매이는 사람 없음, 매일 필요도 없음.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함, 결혼한 애들은 신랑 눈치 시택눈치 보나 난 그렇지 않아 좋음,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 애들까지 챙기며 직업 활동하는 그런 삶이 싫음 또는 모두 잘 해내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식함.

#### IV.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가족 애착’, ‘특별한 사람들’, ‘소홀한 친인척 관계’, ‘작은 사회생활’, ‘만남의 상실’,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라는 6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 대주제별로 분석된 16개의 중주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의 경험을 인용하여 예증적 방식에 따라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가족 애착

###### 1) 돌보아지는 성인아이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부모님이 모

든 것을 다 해주는 분(백설희, 42)”, “의식주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는 자(김상미, 38)”라고 인식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사건을 전후로 하여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싱글 여성들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려는 필요성 보다 부모와 함께 동거하며 옷을 결정하는 사소한 일부터 신변의 안전, 경제적 부분에 이르기까지 의존적이어서 성인이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돌보아지는 ‘성인 아이’같은 모습을 보였다.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뭐 그냥 의사결정을 할 때도 도와주시고, 정서적으로도 지원해 주시고, 또 힘든 일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정서적인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는 뭐, 부모님도 저한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저도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도움을 준다든가는 맛있는 밥을 사 드린단것의 수준이지요 음..., 그냥 다

모든 거를 다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업무나 뭐 이러한 것에 관련되는 일들을 의사결정 할 때, 사소하게는 옷 살 때 결정하는 것까지 결정을 같이 해 주셔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배우자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부모님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경기도 백설희, 42세 전문직)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전혀 없어요. 결혼해서 사는 것 보다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을 못 버리는 것이고... 지금은 부모님이랑 살면서 의식주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니까...엄마아빠가 안 계시는 때, 그때가 제일 걱정이예요. (울머거림) 그니까 혼자 사는 언니 집을 가는 데 가구가.. 뭐 침대, 쇼파 이런 거 들어올 때 가구점 직원들이 갖다 주지만 다른 거는 플라스틱 무거운 거를 언니가 들 수가 없으니까,..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내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그리고 여자 혼자 있으면 또 위험한 일도 많잖아. 도둑도 들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붙을 수도 있고 지금은 부모님이 율타리가 되고.. 율타리가 없다는 거. (기혼자들은 율타리가 있는 걸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서울경기도 김상미, 38세 전문직)

## 2) 싱글생활에 대한 지지

연구참여자들인 싱글 여성들이 오랫동안 결혼이나 독립을 선택하지 않고 원가족에 머무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 싱글을 허용해주는 가족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 부모님은 딸의 결혼에 관하여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고(이수정, 42세), 어쭙잖은 남자를 만나느니 당당하게 혼자 살라고(최윤정, 40세) 조언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겠지(백설희, 42세)라고 체념하며 딸의 싱글 모습을 수용하며, 딸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내색하지 않기도 한다(김민현, 32세).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싱글의 삶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결혼이나 독립을 더욱 늦추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착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자유롭게 지속하는데 조금 자유롭지 않았나 싶고, 부모님들께서 성화를 하셨으면 아무래도 저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서울경기도 이수정, 42세 전문직)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우리 집만 하더라도 엄마가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그러지만 어쭙잖은 남자 만나는 것보다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낫다, 라는 얘기를 간간히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가치관이 내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 같거든요. (경상도 최윤정, 40세 전문직)

엄마랑 살아요. 엄마는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웃음) 저는 언젠간 가겠지 좀 기다려 보라고 그래요. 짝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니까. 엄마는 그냥 결혼을 했으면 하긴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남들은 뭐 명절 때 스트레스 준다 그러는데 그런 건 별로 안 받아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거를 좀 시키는 쪽이 라서, 엄마가 이제 불안해하고 그런거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내색 안해요. 저희가 스트레스 받을까봐서. 다른 형제자매하고 교류는 가끔. 관계는 ....., 어떤 한 쪽은 친하고, 또 어떤 한 쪽은 그냥. 그냥.. 둘 다 남잔데도, 둘 다 기혼자. (전라도 김민현, 32세 비전문직)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희가 뭐 아버지 이렇게 우리한테 스트레스, 결혼에 대해 압박을 안 주는 거는 신식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압박을 안주는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뭐 크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경상도 김승희, 38세 비전문직)

## 3) 끈끈한 가족관계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체로 가족과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의지할 데 없는 처지(백설희, 42세)에 관하여 걱정하기도 한다. 엄마 아빠와 있는 것이 좋고(김민현, 32), 부모님과 사이가 나빴다면 집을 나갔을 것(김상미, 38)것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엄마는 자주 만나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고경희, 38)이다.

엄마랑 친밀도가 좋고, 아빠랑도 친밀도가 좋아요. 가족이랑 친하니깐 정서적인 부분들에서 괜찮은데, 엄마 아빠 돌아가시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걱정 내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현재 있는 것 같긴 해요. (서울경기도 백설희, 42세 전문직)

우리 엄마 근처에 살고 그래 가지구 자주 봐요. 큰 언니는 자주 만나고, 오빠는 자주는 못 만나도 그래도 뭐 서먹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애기도 말도 잘하고 그래요.  
(전라도 고경희, 38세 전문직)

부모님과 친밀도는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죠.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쁘으면 집을 나갔겠죠.  
(서울 경기도 김상미, 38세 전문직)

현재 생활에서 전 별로 외로움 틈이 없는 것 같아요.(웃음) 바빠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피곤하지. 외로움 틈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가족, 엄마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전라도 김민현, 32세 비전문직)

## 2. 특별한 사람들

이 연구에 참여한 싱글 여성들에게 특별한 친구가 되어주어 지지처와 위안이 되어주고 부재한 남편의 자리를 대신하여 삶을 나누는 주요한 인물로 존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엄마와 언니의 존재였다.

### 1) 엄마 사랑

이 연구의 참여자들인 싱글여성들은 엄마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엄마와는 하루에 몇 번씩 통화 하면서 (이연희, 41세) 자신의 일상을 나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엄마를 찾고 엄마도 상담할 일이 있으면 장녀를 찾는다(김미연, 35세), 그리고 엄마는 편찮으시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나의 짜증이 오히려 엄마에게 활력이 될 수도 있을 것(최윤정, 40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이 연구에 참여한 싱글 여성들에게 엄마는 끈끈한 애착을 넘어서 두 개체가 상호 얽혀있는 것처럼 끈끈해 보인다.

엄마랑 정서적으로는 굉장하...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구요, 저는 엄마 용돈 조금씩 드리는 정도? 뭐 이렇게 간단한 그 뭐 드시는 영양제 같은 것을 사드리는 정도... 매달, 뭐 그런 정도  
(경상도 이연희, 41세 비전문직)

정말 .. 음.. 제가 컸잖니까.. 장녀거든요. 그니까 엄마하고 저하고 있으면 나이 차이가 한 이십 몇 년..? 이십.. 한, 이년, 삼년? 그렇게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관계가 형성 돼버린 거예요. 어어. 그러면서.. 아주 전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운.. 네에.. 엄마가 다 상담하구, 이렇게.. 막.. 아버지가 안계시니까. 이제 집안일 있지만... 물론 막내아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저한테 먼저 말씀 하시고, 뭐 이렇게 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나를 많이 의지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전라도 강미연, 35세 비전문직)

엄마는 분명히 환자, 암환자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끝... 지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엄마한테 가고 있어요. 또 엄마는 다 받아주고요. 친밀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게 친밀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엄마를 조심하게 되고, 진짜 모시게 되는 거고...내가 있는 그대로 짜증내고 하는 게 오히려 엄마한테는 삶의 활력이 되지 않을까 막 일도 시키구요...아이 낳으면 엄마 살아있을 때 아이 낳으라고.  
엄마가 먼저 말씀하셔요.  
(경상도 최윤정, 40세 전문직)

### 2) 친구같은 언니

이 연구의 참여자들인 싱글여성들에게 엄마 다음으로 특별한 사람은 언니로 유독 형제자매들에서 여성인 자매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임에도 제일 친한 친구(박지윤, 33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언니와 해결하고(김승희, 38세)”, “언니가 결혼을 안했기 때문에 완전히 외톨이가 아니라고(고경희, 38세)” 다행스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언니랑 어.. 자판데도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행복하고, 자주 가는 편이고.. 그러니까 결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생활들이 잘 안 될테니까.. 예.  
(경상도 박지윤, 33세 비전문직)

서로가 뭐 이런 일 있다 했을 때, 회사생활 하면서 조금 스

트레스 받치는 일이던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금, 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언니하고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이가 좀 가까워지는 것 같고 예.. 그런 부분.. (경상도 김승희, 38세 비전문직)

제 바로 위에 언니가 결혼을 안했거든요. 그것은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도 결혼을 하고, 전부 다 결혼을 했으면 제가 좀 심심했을 텐데. 바로 위에 언니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놀 사람도 있고, 들어서 이제 서로 은근히 마음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나이 들어도 재하고 살면 돼.

나는 언니하고 살 수가 있어.

그니까 서로 의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 둘이는 결혼 안 해도 완전히 외톨이는

아니야. (전라도 고경희, 38세 전문직)

### 3) 사랑스러운 조카

연구참여자들에게 조카들의 웃음과 뛰어 노는 모습은 삶의 활력이 되어주었고(김승희, 38세), 조카들에 대한 애정과 애뜻함(박지윤, 33세)이 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다. 싱글 여성들이 조카를 돌봄의 대상이자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며 관계를 맺어 나가는 현상은 최근 싱글들의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조카라던지, 조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저기...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했으면 아니 결혼을 했으면 조카를 이렇게 진짜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거고 정말 또 어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러니까 지금 현재 동생이 결혼했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한 가족, 다른 가정을 꾸려나갔지만 현재에도 지금 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잘 있게 잘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고 또 조카를 마음대로 가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경상도 김승희, 38세 비전문직)

제 조카들하고 같이 생활해보니까 그냥 회사에서 뭐 피로감이던지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애들 얼굴 더듬는 거라든지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때는 모든 게 다 정지가 되더라구예. 이 애들 웃는게,

이렇게 뛰어노는 것도 너무 좋고 애들 먹는 거, 이렇게 즐

즐쭙 우유 찻국지 빨면서 누워있는 거  
그거만 해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내 삶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뭐 애들 눈만 봐도 기분이 좋고 웃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고 예..

(경상도 김승희, 38세 비전문직)

조카들도 자주 보다 보니까 언니네 조카들하고 또 굉장히 유대감이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많이 대하고 했기 때문에 애뜻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들에 대한 애정도 좀 큰 것 같구요.

(경상도 박지윤, 33세 비전문직)

### 3. 소원한 친인척관계

연구참여자들에게 친인척 관계는 대체로 소원하여 행사 모임(백설희, 42세)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모이는 편이며, 친척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배하나, 44세), 활발하게 왕래하지 않는다(김승희, 안현아, 40세). 싱글여성들에게 친인척관계는 자신들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들은 친척 잘 안 만납니다. 친척들하고 명절 때 될 수 있으면 같이 안 하려고 하죠. 원래 어릴 때부터 교류가 잘 없었어예. 저는 가족하고 함께 생활하는 결혼 한 사람들을 부럽다고 느꼈던 상황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다 뭐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부러워할 것도 없었고예.

(경상도 김승희, 38세 비전문직)

친척들하고의 관계는? 저희 외가 쪽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도 안 계시는데다가 안 계시다보니까 인제 막 사이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 친가 쪽은 어머니를 보았을 때 동서쪽 있잖아요. 이전부터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 형제들이 좀 뭐라고 해야되노... 서로 조금... 거리가 멀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왕래가 없고, 어릴 때는 부산 가서 살고 비비대고 방학 때마다 가고 그랬는데 자라면서 더더욱 관계가,

막 이래 활발하게 왕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큰 행사 때나 한 번씩 보고예.

(경상도 안현아, 40세 전문직)

그다지 친척관계는 아주 썩, 뭐... 원활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활하지 않는 것이 친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글썄요? 일단 그런 친척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요, 관심을 두고 싶지 않고

내가 뭐 지금 일단 내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에 매달리다보니까

다른 친척 관계 일들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경상도 배하나, 44세 전문직)

다른 친척 분들과 교류는 많이 안 하고, 특별한 행사 있을 때,, 행사 중심의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경기도 백설희, 42세 전문직)

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머 교수님들도 일적으로 만났지만 친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새로운 동호회 같은 걸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것과 연결 되어서 제3의 또 다른 만남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일적으로 만났지만 친해지면 관련된 선생님이사면서 그 동시에 그냥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직장 생활에서는 잘 해주셔서 좋아요.

(서울경기도 백설희, 42세 전문직)

## 2) 지인들과의 답소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소수의 오래된 지인들 또는 옛날 친구들과 만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감정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느 친분 관계가 그렇듯이 싱글 여성들도 친한 친구들을 만나 감정을 털어놓고 교류하며(이유림, 36세), 저녁 약속을 하며 시간을 함께 보낸다(이송이, 36세).

## 4. 작은 사회생활

### 1) 직장에서의 인연

연구참여자들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만큼 직장과 일은 싱글 여성들에게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장 친하며(최지은, 38세), 일적으로 만났으나 이후 동호회, 수다 모임 등 개인적인 친분(백설희, 42세)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주로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과 관계를 주로 하고 있어요. 네.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관계라서 인간 폭이 좁아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 만족?.. 비교적 만족해요.

현실을 인정하니까(서울경기도 김상미, 38세 전문직)

가족 이외에 관계를 맺는 사람은

주로 아무래도 현재 근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 아무래도 가장 친하겠죠? (서울 경기도 최지은, 38세 비전문직)

일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나 또 그런 것들도 연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직장 생활

주로 지인들을 만나요. 운동 나갈 때 같이 만나고 저녁 약속을 해서 같이 먹어요. 저는 또래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연령상으로 거의 위어가 많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글썄요. 제가 이제 막내고 언니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더 사이좋게 더 지내는 타입이지, 나이 어린 친구들을 잘 챙겨주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전라도 이송이, 36세 전문직)

굉장히. 열 손가락 안에 뽑을 만큼... 감정을 털어놓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은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어... 3명은 결혼을 했고요, 2명은 결혼을 안 했는데요. 다 여자구요. 저는 되게 오래된 친구들과 감정 상태를 나눠요.

(전라도 이유림, 36세 전문직)

### 3) 이성과 거리두기

이 연구에 참여한 싱글 여성들은 이성과의 만남을 편하게만 생각하지는 않는 듯 하다. 이성과의 교제 경험이 없기에 이성과의 것 자체가 불편하고(안현아, 40세), 이성과 친구가 되기도 어렵다(남진숙, 39세)고 인식한다. 그리고 너무 혼자 있다 보니 이성과의 만남이 흥미롭게 다가오지도 않는다(남진숙, 39세).

이러한 몇 몇 이유로 싱글 여성들은 이성과의 만남이 즐겁거나 편하지 않기에 이성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 잠시 같이 만났던 동기? 그 정도라면 아예 소식 끊은 지가 오래 됐으니깐 그건 학창시절 이야기고 이성친구라고 해봐야 저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선을 보는 상대였지, 제대로 된 이성 친구를 사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이성이랑 같이 있는 거 자체가 불편해요.  
(경상도 안현아, 40세 전문직)

예전엔 이성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는 있었는데, 친구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지내다보니깐 친구가 안 되고 그냥 남자로 제가 느껴질 때도 있고 상대방이 느낄 때도... 불편하더라고요. 서로 딱 둘이 느낌은 좋은데... 한쪽에서만 그러면 불편해서 안 좋더라고요. 친구로만 보이는 거지 이성으로는 안보여서.  
(전라도 남진숙, 39세 비전문직)

혼자 있는 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이성도 그냥 그 친구 같고 아까같이 왜 남자로 안보일까, 그냥 그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귀찮은 건 아닌데 새롭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혼자 있다 보니깐...  
(전라도 남진숙, 39세 비전문직)

#### 4) 싱글은 싱글끼리

싱글 여성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비슷한 싱글과의 만남을 대체로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여기며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가 잘 통하며(남진숙, 39세) 기혼여성들과는 대화의 소재가 잘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요? 친구들이요. 직장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은 가깝구... 그 다음엔 대학시절, 이런 친구들은 그냥 가끔씩 만나는 정도? 연락하는 정도구요. 싱글이 많구요. 하하하 그러구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구요. 직장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러구 예. 싱글이 많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서울경기도 한혜진, 41세 전문직)

저하고 이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싱글인 사람들.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알아듣으니깐요.  
(전라도 남진숙, 39세 비전문직)

동성친구가 많지는 않고, 그냥 같은 싱글들.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이전 학교 선생님들. 폭이 좁아요. 대학교 친구들이 있어.  
(경상도 안현아, 40세 전문직)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보면, 직장에서의 인연, 정서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가까운 친구 등의 지인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싱글들이 중요한 인간관계의 축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다소 협소한 형태로,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몇몇 친구들과 식사 약속, 전시회 및 영화 관람 등 다소 정적인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었다. 싱글 여성들은 의도적이나 의무적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사회적 관계를 넓혀나가는 일에 관심이 적은 편으로, 의무적으로 만남을 지속하며 관계를 맺어야한다는 의지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싱글 여성들에게 사회적 관계는 “작은 사회생활”로만 축소롭게 여겨지는 듯하다.

#### 5. 만남의 상실

##### 1) 만남보다 홀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데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35살에 벌써 할머니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슬프지만 밖에 나가 노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만남에 관하여 누구의 권유를 받아도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고 한다. 또한 자신이 누군가를 만날 의지가 없을 때는 전화가 오더라도 만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술마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최운정, 40세).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 붙어있는 것이 힘들다(고경희, 38세)고 언급한 참여자들의 내용을 통해, 싱글 여성들에게 사회

적 관계는 소극적이며 홀로 지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만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 싱글이지만 35살이지만 할머니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9시면 잠자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고 또 9시면 잠자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녀는 70세 넘은 저희 어머니도 하는 생활이고, 그녀를 60, 70세 넘어서도 할 수 있는 생활을 지금 35살부터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권유를 해도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저녁에 나가서 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아니니까 강요를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본인 나름대로 그게 또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할 말이 없죠.

(전라도 이승이, 36세 전문직)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막 전화 오거나 막 누구 연락하고 만나자 하잖아요 난 일절 안 받고 그냥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내 일에 정열을 쏟았기 때문에 자리를 좀 빨리 잡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여가 잘 하면 되니까...

주로 혼자서 많이 그걸 푸시는데, 절대 어울려 가지고 술 마시고 어디어디 가고 뭐 이런 건 안 해요.

(경상도 최윤정, 40세 전문직)

혼자 있는 걸 별로 이렇게 힘들어 하지 않는 것들. 제가 만약에 혼자 있는 게 힘들었으면 누구든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오히려 사람들하고 늘 붙어있는 게 힘들고, 그런 게 있어요.

(전라도 고경희, 38세 전문직)

## 2) 귀차니즘

연구참여자들에게 사회적 관계는 종종 귀찮은 일로 인식되고 있었다. 어디를 가야 하고 사람들과 시간을 맞춰야 하고(강미연, 35세), 낯선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하는

것도 별로이다(배하나, 44세). 또한 맞선에 나가 인사를 하고 새롭게 사람을 사귀어 가는 과정이 귀찮다(남진숙, 39세). 이들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만남을 유지해나가는 데 관심이 적고 혼자 노는 데 익숙한 귀차니스트<sup>2)</sup>로 일컬을 수 있겠다.

직업 생활 이외에 하고 있는 유일한 활동이 거의 그. 성가대 활동입니다. (다른 건 없나요?) 네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폭을 넓히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귀찮은 거 싫어 하니까. 어디 가야 되고 시간 맞춰야 되고. 직업상 시간이 이렇게 자유스럽거나 하지 못해서..

(전라도 강미연, 35세 비전문직)

저는 일단 낯선 사람 만나는데 즐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기보다는 있는 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경상도 배하나, 44세 전문직)

부모님이 맞선이 있다 그게 그렇게 귀찮아서 보통 핑계를 대고 안 나가고 싶어요. 그 자체가 귀찮아.

그 사람을 새롭게 만나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생각하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전라도 남진숙, 39세 비전문직)

## 3) 벽찬 일상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자신의 일상이 매우 바쁘다고 표현하고 있다. 평소 직업에서 의무적으로 만나야 하는 관계(김상미, 38세)만으로 벽찬 일상<sup>3)</sup>에 일 외에 사람을 만나겠다는 희망은 자발적으로 생겨나지 않는 편이다. 피곤할 뿐(김상미, 38세)며, 직장 생활외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24시간이 너무 바쁘기에(최윤정, 30세) 그 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적을 뿐 아니라 시간상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시간을 조정하여 사회적 관계를 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이나, 일단 육체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만남을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그 동기가 매우 적어 보인다. 결국 일로 인한 벽찬 일상은 사회적 관계를 좁혀나

2) 귀차니스트란, 귀찮은 일을 몹시 싫어하고 혼자 노는 데 익숙한 젊은 세대의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며, 귀차니즘은 귀찮은 일을 몹시 싫어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일컫는 신조어이다(네이버 국어사전, 2016).

가게 만들고 있으나, 싱글 여성들은 자신들의 좁은 사회적 관계에 불만스러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관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일을 하니까 학부모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적어서 지금 영입이 저조한데, 다른 인간관계를 뚫을 거면 영업상 인간관계를 뚫어야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이런, 나랑 관련된 사람들도 다 컨택을 못하는데, 더 이상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인간관계에 대한 희망, 반응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를 다 하면, 그 외에 바깥에 것도 더 하고 싶지만 일단은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주중에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주말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싱글들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주중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피곤해요. 인간적으로 (서울경기도 김상미, 38세 전문직)

직장생활 말고도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인 활동은... 제가 조절을 못해서.. 힘든 것 같아요. 하루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유유히 즐기면서 잘 생활하는데 저는 진짜 몇 가지 하면서도 너무 너무 바쁘거든요. 바뀌어야 하면서 잘 안 바뀌어줘요. 주변에서 나를 너무 완벽주의라 하는데,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경상도 최윤정, 40세 전문직)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쉬어야 되고, 또 그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남들이랑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또 남자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외로움 틈도 없어요. 피곤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경기도 김상미, 38세 전문직)

### 6.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

연구참여자들은 작은 사회적 관계의 범위 일지라도 엄마, 언니와 조카 세 부류의 특별한 사람들, 직장에서의 인연 및 친구 등 정서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지인들, 기존 친구들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싱글 위주로 자신들만의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싱글여성들은 자신의 영역에 타인이 과

도하게 침범될 것들에 관하여 주의하는 태도를 지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도하게 누군가와 애착을 형성하게 될 것에 관한 ‘애착 주의’와 자신의 삶이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복잡하게 얽혀질 것에 관한 ‘얽힘 주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 1) 애착 주의

조카와 여동생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조카는 조카일 뿐(안현아, 40세)이다. 여동생 가족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왔으나, 동생은 동생네의 가족일 수 밖에 없다(배하나, 44세). 위에서 나타난 결과처럼 조카는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나 동시에 과도하게 애착을 형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는데, 결국 “나의 가족”은 아님을 인식하며 자신의 영역과 분리하며 선을 긋고 있다.

조카들에 대한 사랑은... 그 정도가 약해진 정도인데. 이전에는 조카들 유학간다하면 돈 많이 보태줘야지 내 자식은 없어도 아들 함 잘 키워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졌는데 요새는 보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조카는 조카일 뿐인데 내가 그래 뭐 할 필요가 있겠나 어느 정도껏만 하자  
애착은 가지지 말자라고 생각을 바꿔가고 있는 중이에요. (경상도 안현아, 40세 전문직)

특히 저는 여동생 가족하고 친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뭘 서울에 갈 일 있을 때 마다 늘 가서 같이 있어주고, 내가 돌봐주고 싶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제가 조금 거리를 두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결국은... 동생은 동생네의 가족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외로워지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독립적으로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상도 배하나, 44세 전문직)

#### 2) 얽힘 주의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무언가 얽혀지는 복잡한 일들은 반기워하지 않는 듯 하다. 결혼한 친구들의 경우, 시댁에 매이고 남편에 매이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 싱글



여성들에게는 원치 않는 삶이다. 언제라도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매이는 사람이 없도록(고경희, 38세), 주변 사람들에게 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결혼한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누구의 허락이나 관여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다(이송이, 36세)는 점도 싱글 여성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점이다. 결국 얽매이지 않는 삶이 부여해주는 자유(강미연, 35세)는 싱글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자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다.

싱글로 있어서 참 만족스럽다 이럴 때도 많아요 집에 이렇게 혼자 있고 이럴 때. 그니까 하고 싶은 제 마음대로 제가 시간을 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저한테 매이는 사람도 없고, 제가 매일 필요도 없고 독립적인 결정을 하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전라도 고경희, 38세 전문직)

예를 들어 뭘 한다고 그랬을 때, 개내들은(기혼자들) 나도 그거 꼭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데 그건 생각에 미칠 수 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래? 나는 다음 주에 간다. 이렇게 저는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차이점이 아닐까요? 개내들도 물론 실천으로 옮기려고 미친 척하고 옮길 수 있는 거지만 신랑 눈치 봐야지. 시댁 식구 눈치 봐야지. 자식 문제도 있지. 말걸 때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전라도 이송이, 36세 전문직)

싱글이라서 좋은 점? 으음... 그런 건데? 자유스러운거?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내 자신이 뭐 어디, 그니까 예를 들어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집에 가있어야 된다가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집에 가서 살림을 해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이런 분들을 보면 같이 직업여성인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저는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죠. (전라도 강미연, 35세 비전문직)

## V. 결론 및 제언

이 장에서는 30-40대 싱글여성의 원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경험으로 분류된 총 16가지(가족 애착 3개, 특별한 사람들 3개, 소원한 친인척관계 1개, 작은 사회생활 4개, 만남의 상실 3개,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 2개)의 하위범주를 종합적으로 결론 맺고, 인구교육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며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 애착’에서 분류되어진 세 가지 하위범주-돌보아지는 성인 아기, 괜찮아 싱글, 끈끈한 가족관계-를 통해 살펴볼 때 종합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우선 30-40대 싱글여성들은 부모의 그늘 아래 놓여 성인임에도 부모로부터 돌보아지거나 결혼의 압박에서도 대체로 자유롭게 나타나 자녀와 부모는 마치 쟁거루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옷을 고르는 등 소소한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부모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로 보일 수 있겠으나, 심리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한 자아의 미독립 상태로 볼 수 있다. 최근 싱글들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유보해나가며,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쟁거루족”이라는 신조어로 일컫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부모들의 노후에 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자녀들의 양육자 혹은 돌보아주는 자로 위치한다면 신체적 노화와 경제적 돌봄으로 지쳐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는 취업과 경제난 등의 사회 구조적 어려움이 그 바탕에 놓여있으나, 미시적인 측면에서 가족 및 복지적 영역에서 부모들의 노후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들의 건강한 독립을 권장하고 격려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모와 동거하는 싱글족들에 관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30-40대 싱글여성들은 결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가족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는 싱글 여성들이 결혼해야 할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원가족 경험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보면, 결혼 하지 않는 싱글들은 부정적인 원가족의 성장배경(Kang,

2015)이 결혼에 결립들이 된다는 보고 뿐 아니라, 부모의 갈등, 아기가 하지 못한 모습 등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끈끈한 가족관계가 동시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이유(Wang, 2015)라 설명하는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싱글 여성들의 끈끈한 가족관계를 엿볼 수 있어, 싱글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음에 원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Kang(2015)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 과거에 비해 자녀수가 줄어든 가족 구조의 변화는 부모자녀관계를 보다 밀착시키는 경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싱글여성들은 그들의 비혼이 부모에게 허용되어지며 끈끈한 가족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과거의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주었던 원가족의 부정적인 분위기나 결혼을 방해하는 것이 원가족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끈끈하고 밀착된 가족원과의 관계가 결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반증한다. 더불어 싱글 여성들의 독립을 유보하게 하는 또 하나는, 부모들의 가치관 변화로 자녀들의 싱글로서의 삶이 부모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부모는 자녀들의 결혼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고, 결혼의 선택을 자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편이었다. 종합해보면,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돌보아지는 안락함, 싱글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가족의 분위기, 그리고 끈끈한 가족 관계는 결혼의 선택 여부에 있어서 싱글 여성이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필요성을 약화시켜서, 안락하고 편안한 자신의 원가족에 머무르도록 하는 상황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둘째, 30~40대 싱글 여성들은 가족원 중 성별로 자신과 동일한 엄마와 언니를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의지처로 삼고 있었고, 조카들을 통해 돌봄의 욕구를 채워나가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 중 엄마와 언니, 그리고 가족 외 관계에서 조카라는 대상은 30~40대 싱글여성들에게 특별한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엄마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언니와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그리고 조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일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때로는 고독의 감정을 위로받고, 애뜻함을 주는 대상으로 지목하며 자신들의 결핍된 돌봄의 욕구를 채워나가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혼 여성들이 결혼한 형제들보다 조카들에게 준부모의 역할을 하는

등 더 긴밀한 친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결과(Ward, 1979)가 있는데, 이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결혼한 형제들과 비교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조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은 일치되는 결과이다.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정상이라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 싱글족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애정의 대상으로 삼고 가족으로 인정하며 함께 산책하며 테이트를 하거나 죽음을 맞이할 때 장례를 치루어주는 형태들을 보면, 싱글족들이 정서적 충족을 위해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 또는 동물에 관하여 보다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30~40대 싱글 여성들의 주된 애착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과 가족 외 조카라는 인물이 싱글 여성들의 주요 애착 대상으로 떠오른 점은 흥미로운 점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관여하여 나타난 결과인지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세 부류의 대상은, 본 연구에 참여한 30~40대 싱글 여성들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로 밝혀졌고, 남편을 대신하는 인물이자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정서적으로 가장 근접한 인물들로 해석된다.

셋째, 30~40대 싱글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경험에서 친인척 관계는 다소 소원한 것으로 나타나 친척들의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며 활발한 왕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친인척 관계는 행사 중심의 모임으로 의무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거의 친인척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정서적 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은 싱글 여성들이 명절이나 가족행사가 있는 자리에서 늘 화제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Park & Kim, 2002),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거나 피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변용으로, 이러한 현상은 “D턴족”이라는 신조어가 잘 대변해준다. D턴족이란, 명절 연휴 내내 고향에 머물렀다 귀경하는 U턴족과 달리 추석 당일이나 다음 날부터 나들이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즉, 친척보다는 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와 가족 단위 소비문화가 발달하며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명절 풍습을 바꾸고 있으며 추석 연휴 놀이공원과 캠핑장, 도시의 호텔과 공방이 복직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요약하면 이 연구에 참여한 30~40대 싱글 여성들에게 친인척 관계는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네트워크로 인식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넷째, 30~40대 싱글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는 범위가 작고 다소 정적인 활동들로 이루어지며, 이성과의 만남이 다소 편안하지 않아 거리를 두며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싱글끼리의 만남을 선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싱글 여성들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대체로 소중하게 여기며, 공적인 만남에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싱글여성들에게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가 시간에는 식사 만남이나 커피 등 주로 답소를 나눌 공간을 확보하고, 그 외 산책, 전시회 등 대체로 정적인 활동들이 많았다. 화려한 싱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여가의 일상은 다소 소박해 보인다. 또한 이성과의 만남은 활발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 이성 친구들이 결혼을 한 경우가 많고 그의 배우자에게 실례라고 생각하거나, 이성 친구를 만난 경험이 많지 않아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은 경우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이성 관계에서 싱글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며 건강한 남자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연구(Kang, 2015)와 유사한 결론으로, 싱글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태도 또는 이성 관계 및 친구 관계는 보다 깊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싱글 여성들은 결혼 한 친구들과 대화 이슈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싱글들과의 만남을 심리적으로 더 편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et al.(2010)의 연구에서 미혼여성들은 기혼자들에게 비해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 가운데 미혼자가 많았다는 연구와 결혼한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 서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친구들을 찾게 된다는 Shim(2003)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론이다.

직장에서의 인연이 그들의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밝혀진 점을 보면, 싱글 여성들에게 직업은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일을 중시하며 타인의 만남 요청에 응하지 않고 싱글 여성들의 마음에 적합한 이들을 조용한 분위기나 정적인 활동 영역 가운데 초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능동적이며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싱글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싱글들의 사회적 관계 패턴의 심리적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결

혼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자로 위치하면서 생애주기의 발달과업상 사회문화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결혼”이라는 이슈에 관하여 불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배제 하는 것일 수 있고, 이 때문에 싱글끼리의 만남을 선호하거나 자신의 지인 외 다양하게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확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다섯째, ‘만남의 상실’에서 분류되어진 세 가지-만남보다 홀로, 귀차니즘, 벅찬 일상-를 통해 살펴볼 때 종합적으로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겠다. 우선 30~40대 싱글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특징으로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홀로 있기를 즐긴다. 즉, 자유롭고 편안한 독립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론은 싱글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기호와 선호경향이 강한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그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자기 자신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 내용(Wang et al., 2015b)과 연관된다. 여기에 자신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보다 그들의 휴식에 대한 욕구는 그들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과 맞물려 점차 높아질 수 있겠다. 하지만 넓은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점에 주목해볼 때, 일부 싱글들은 심리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다. 싱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싱글족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여섯째, 30~40대 싱글 여성들은 주된 사회적 관계의 대상으로 엄마, 언니 및 조카, 지인 등이 존재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이 얽매이기는 원치 않으며 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 여성들은 자신의 외부로부터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자유”를 확보해나가고자 함을 볼 때, 싱글 여성들에게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조카는 조카일 뿐, 싱글 여성들은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다. 얽힘을 주의하는 그 이면에는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삶을 스스로 인식해나가며 자기 삶의 경계를 확실히 해두는 일종의 방어로 보여지며 홀로 살아내는 연습을 하

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가까운 특별한 사람들과 애착 관계를 맺고 정서적으로 소통하는데, 이것은 홀로 있기를 추구하며 자유를 지켜나감과 더불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며 소통하는 인간의 본성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Wang과 Lim(2014)은 인구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인구교육의 경험이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가족적 가치관의 출발이 되는 결혼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싱글여성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교육에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에서 지적된 건강하지 못한 지나친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가 결혼의 유보 및 영구한 비혼의 선택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내용이 인구교육의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독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양육자의 역할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자녀 편에서는 성인기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를 가질 뿐 아니라, 노부모의 삶도 운택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분별력있는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의 내용이 인구교육의 내용에서 강조되어 다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여기에서 쟁거루족에서 “신(新)쟁거루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사회 구조 속의 가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성장시킨 이후 최대한 노년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줄 수 있는 노년기 삶의 구성과 관련한 교육도 인구교육의 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들 스스로 독립적이고 성숙한 인간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 인구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 수행한 30~40대 싱글여성들의 사회적 관계의 만남은 다소 그 폭이 좁고, 그들이 자유를 중요한 키워드로 갖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후의 인구교육에서는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건강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향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내용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지속적인 대인관

계의 행복은 조지 베이런트가 지적한 인간의 행복한 생활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그러한 대인관계의 핵심은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인구교육에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셋째, 이 연구의 결과에서 싱글여성들은 엄마, 언니, 조카와는 매우 밀착된 관계를 보이지만, 다른 친인척관계는 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아버지나 남자형제와의 관계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이성과의 만남을 심리적으로 불편해하는 싱글 여성들이 존재하였다. 싱글여성들의 삶에서 아버지나 남자형제와의 거리감 및 이성에 대한 지나친 불편함은 남성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남성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 지나친 경계심, 또는 반대로 지나친 환상에 의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중재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인구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다른 한편으로 싱글여성들이 아버지나 남자형제를 비롯한 남성들과 심리적인 거리를 가지는 것은 남성들의 태도의 문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상대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인구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2040년 서울은 50대가 젊은이 취급을 받을 전망이 나왔고, 2040년 서울은 1, 2인가구가 지금보다 더 보편화한 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410만 가구 가운데 1, 2인가구가 260만 가구가 된다. 지금까지 일반적이라고 인식됐던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구는 10가구 중 2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New1, 2016)고 한다. 1인 가구는 이제 한국에서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며,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하기에는 국가적 인구 절벽의 위기에 닥쳐 심각한 현실에 놓여있다. 싱글들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인구 절벽의 원인과 배경,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의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싱글 여성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싱글여성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은 싱글들의 삶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

서는 30~40대 싱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싱글 남성들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 경험은 살펴보기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싱글 남성들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 경험이 어떠한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참여한 30~40대 싱글여성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계층에 따라 관심을 갖고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Allen, K. R. & Pickett, R. S. (1987). forgotten stream in the family life course: Utilization of qualitative retrospective interviews in the analysis of lifelong single women's family care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517-526.
- Chang, H. S. (2002). A Study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Single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185-195.
- Chang, Y. J. (2000). Psychology for Health Care and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1), 1-11.
- Cho, S. H. (2014).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ongailbo (2016). “나혼자 산다” 27%, 1인가구 30년새 8배로, 2월 18일자.
- Ha, S. H. (2008).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2). 129-141.
- Hankookilbo (2016). 비혼 한국.. 혼인을 최저, 여성 초혼 연령 첫 30대 진입. 4월 7일자.
- Kang, J. Y. (2015). (A)study on the psychological phenomenon of the unmarried Christian women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ekseok University, Chungnam, Korea.
- Kim, B. R. (2013). Structural relations of convenience food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ietary style : focusing on singles in metropolitan area of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Kin, H. Y., Sun, B. Y., & Kim, S. D. (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Women's Studies Forum*, 18.
- Kim, S. O. (2002). A Study on the Single's Kinship Behavior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173-184.
- KukminIlbo (2016). 2015년 한국은 결혼관 달라지면서 1인 가구 늘고 출산율은 줄고. 3월 23일자.
- Lee, M. S. (2002). Depth interview study.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8(1), 215-241.
- McDill, T., Hall, S., & Turell, S. C. (2006). Aging and creating families: never-married heterosexual women over forty. *Journal of Women & Aging*, 18(3), 37-50.
- Moneytoday (2016). 저출산비혼 확산..1월 출생혼인 건수 역대 최저. 3월 24일자.
- Naver Korean Dictionary (2016). <http://krdic.naver.com>
- New1 (2016). 2040년 서울은?...인구 900만명·50대가 젊은이. 9월 26일자.
- Noh, M. H., & Lee, I. S. (2011). Family Experiences of Never-Married Women.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9(1). 77-101.
- Sung, M. A. (2014a). Marriage and Family Discourse of Ever-Single Women in their 40s and 50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2). 131-141.
- Sung, M. A. (2014b). The Lives of Never-Married Women in Their 40s and 50s :Current Freedom, Unsecure Future and Exclusion from Policies. *Family Relations*, 19(2), 145-168.
- Segyeilbo (2016). "나는 결혼 안할래. 하지만 축의금은 돌려줘"... 비혼(非婚) 선언, 신 비혼 풍속도. 2월 6일자.
- Shim, K. M. (2003). (A) Study on Korean Unmarried 'bihon(非婚)' Women : Concerning socio-cultural factors which influence unmarried women in their mid-thirty to late fo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D. J. (2009). A Study on the Measure of Audience

- Development Surveying the Status Quo of Watching Performing Arts : Focused on the Leisure Activities of Singles-by-Cho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JoongAng Ilbo (2016). “외로움에 빠지면 면역력 ‘뚝’ 성찰 기회로 삼으면 활력 ‘쑥’, 2월 15일자
- O'Brien, M. (1991). Never married older women: the life experi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3), 301-315.
- Park, J. Y., & Kim, J. H. (2002). A case Study to Analyze Welfare Needs of a Single Famil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0(10). 17-31.
- Pubinstein, R. I., Alexander, B. B., Goodman, M., & Luborsky, M. (1991). Key, relationships of never married, childless older women: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46(5), 270-277.
- Spreitzer, E. & Riley, L. E. (1974). Factors associated with single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6(3), 533-603.
- Wang, S. S., Jun, J. R., & Ryu, K. H. (2015a). Analysis of the reasons why single women in their thirties or forties choose not to marry: implications for population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27(2). 35-51.
- Wang, S. S., Jun, J. R., & Ryu, K. H. (2015b). Thematic Analysis of Everyday Lives of Single Women in Their Thirties or Forties - Implications for Population Educatio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27(4). 67-91.
- Wang, S. S., Lim, Y. M. (2014).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26(4). 147-164.
- Ward, R. (1979). The never married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4, 861-886.

<국문요약>

본 연구는 30-40대 싱글여성의 원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경험을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다. 서울경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싱글여성 1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의 축어록을 통해 참여자들의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진술문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였고, 수집한 자료들은 주제별 분석법을 적용하여,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족 애착’, ‘특별한 사람들’, ‘소원한 친인척 관계’, ‘작은 사회생활’, ‘만남의 상실’,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 라는 6가지 대주제를 찾을 수 있었다. ‘가족 애착’이라는 대주제에서는 “돌보아지는 성인아기, 싱글생활에 대한 지지, 끈끈한 가족관계”의 3개 중주제를 찾았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대주제에서는 “엄마 사랑, 친구같은 언니, 사랑스러운 조카”의 3개 중주제를 찾았고, ‘소원한 친인척관계’는 하나의 단일 중주제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작은 사회생활’에서는 “직장에서의 인연, 지인들과의 담소, 이성과 거리두기, 싱글은 싱글끼리”의 4개 중주제를, ‘만남의 상실’이라는 대주제에서는 “만남보다 홀로, 귀차니즘, 벅찬 일상”의 3개 중주제를,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라는 대주제에서는 “애착 주의, 얽힘 주의”의 2개 중주제를 찾아서, 총 16개의 하위 범주를 찾았다. 이와 같은 주제 분석의 결과는 싱글 여성들이 나타내는 원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독특한 경험의 특성으로 볼 수 있어서, 이같은 결과가 싱글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싱글여성들이 보이는 끈끈한 가족관계와 스스로 선택한 좁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특성을 고려하면, 생애설계교육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건강한 애착 형성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도록 지원하는 인구교육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과 다양한 인간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내용이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01월 24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01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3월 29일